

# 제철 수산물 할인해 드새우~

해수부, 19일까지 수산대전  
꽃게·고등어·새우·가공품 등  
시장·온라인 등 최대 40% ↓  
롯데마트 방어회·초밥 행사



5일 롯데마트 모델들이 6~12일 20%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방어회와 방어 초밥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제철 수산물을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맞출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맞이 특별전'이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까지 17일 동안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수산대전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정부가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율을 적용하고, 참여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하면 최대 40%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을을 맞아 인기를 끄는 제철 수산물과 대중성 어종을 선보인다.

정부 물가관리 품목에 오른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포장회(광어·우럭) 등 8가지와 새우, 꽃게 등 제철 수산물이 포함된다.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도 할인한 가격에 내놓는다.

온라인 행사는 오는 16일까지, 점포(오프라인) 할인전은 19일까지 진행된다.

점포 할인을 벌이는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농협하나로마트 등 12곳이다.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 등도 할인전에 동참한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비필제조제로페이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20% 할인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 모바일

상품권은 오는 10일과 17일 발행한다.

이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729개 시장, 1만 3339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 전통시장(onnuri-sijang.com)과 온누리 굿데이(onnurigood.com), 놀장염(놀러와요시장)과 같은 온라인몰에서도 쓸 수 있다.

전국 롯데마트는 수산대전에 동참하며 제철 방어를 유통업체서 가장 빠르게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6일부터 12일까지 방어회와 방어 초밥을 행사 카드로 사면 최대 20% 할인한 가격(300g 회 1만9800원·초밥 10개 1만2900원)에 내놓는

다.

방어는 날이 쌀쌀해질 때 산란을 앞두고 있어 살인 단단하고 지방이 차오른다.

롯데마트는 남해와 강원도 동해, 고성, 속초, 포항, 제주도 등지에서 방어를 직접 매입해 고객에게 내놓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산대전 기간 상품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물가 꺾였다? 아직 안꺾였다!

전년비 광주 5.6%·전남 6.3% 올랐지만 두 달째 둔화  
이달부터 전기·가스료 인상...연 6%대 상승 여지 남겨

## 호남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 동향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누그러졌지만 이달부터 필수 공공요금인 전기·가스료가 오르면서 고물가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광주 5.6%·전남 6.3% 올랐다.

지역 물가 상승세는 두 달째 완화하는 추세다. 광주는 7월 6.6%에서 8월 5.8%, 9월 5.6%로 '5%대'로 내려앉았다. 전남은 두 달 전 7.3%에서 8월 6.6%, 9월 6.3%로 6% 초반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1-9월 누계 물가 상승률이 5.7%로, 연간 물가가 6% 선까지 오를 여지를 남겨뒀다.

채굴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광주 6.8%·전남 7.0%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6.5%)을 웃돌았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요금, 집세, 공공서비스 물가 등은 전월보다 상승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전남지역 개인 서비스 물가는 전월보다 상승 폭이 늘었다.

지난달 개인 서비스 물가는 전년보다 광주 5.8%·전남 6.5% 상승했다.

광주 상승률은 전월과 같았지만 전남은 지난 8월 6.3%에서 상승률이 더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에 포함된 외식물가는 전월 3개월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전남 외식물가 상승률은 9.7%로, 전국 평균(9.0%)을 웃돌았다. 전남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 1993년 3월(10.0%)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 외식물가는 전년과 비교하면 8.4% 올랐는데, 전월 상승률(8.6%)보다는 완화됐다.

호남통계청이 조사한 458개 품목 가운데 광주에서는 351개가 전년보다 가격이 올랐고, 전남은 362개가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들 품목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배추였다.

지난달 배추 가격은 전년보다 광주 98.0%·전남 83.4% 올랐다.

무 가격도 광주 96.9%·전남 83.3% 상승했고, 풋고추는 광주 35.0%·전남 66.7%, 당근은 광주 65.8%·전남 37.4% 뛰었다.

석유류 가격 상승세는 누그러졌지만 등유(광주 61.2%·전남 75.3% ↑)와 경유(광주 28.5%·전남 28.9%)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다.

전년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 품목은 광주에서 17.0%, 전남에서 13.7% 하락한 쌀과 병원검사료(광주 19.7%·전남 19.6% ↓), 유치원납입금(광주 15.2%·전남 59.2%), 배(광주 22.2%·전남 9.0%) 등이 있었다.

물가 상승 폭이 낮아지고 있지만 10월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국제 유가 추이, 환율 등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보통(물가가) 정점을 찍으면 급격하게 쉼 내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고원 형태를 만든 후 일정 기간 높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급,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물가 관련 주요 요인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김장용 해남 절임 배추 '반값 예약'

## 롯데슈퍼, 11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롯데슈퍼가 해남 배추 등으로 만든 '절임 배추'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롯데슈퍼는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모든 점포에서 1700t(8만 상자) 상당 절임 배추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절임 배추는 20kg 단위로 선보여진다. 롯데슈퍼는 이들 상품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내놓는다.

황토밭에서 자란 해남 배추(3만6900원)와 해발 700m 고랭지에서 생산된 평창 배추(5만4900원)가 매대에 오른다.

해발 400m 준고랭지에서 재배된 괴산 배추도 3만9900원에 판매한다.

1-2인 가구가 손쉽게 김장할 수 있는 '간편 김장 꾸러미'도 나온다.

절임 배추 7kg(3포기)과 전라도 방식 김치 양념 2kg을 행사 카드로 사면 3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외 알타리 김치, 갯김치 등도 선보여진다.

롯데슈퍼는 지난 2016년부터 해남군과 협업해 해남 절임 배추를 판매하고 있다. 절임 배추 사전 예약 상품들은 10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생산된다.

사전예약한 상품은 오는 11월4일부터 12월17일 사이에 지정된 날짜에 매장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배추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오른 가운데 이달 도매가격도 지난해의 1.5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엄근채소 10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배추 출하량이 평년과 비교해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은 10kg(상품) 기준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같은 달 도매가격 5821원과 비교하면 1.5배, 평년 가격(7159원) 대비 1.3배 수준이다.

연구원은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다음 달에는 도매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이마트, 노브랜드·피코크 상품가 동결

이마트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자체 상품(PL)인 노브랜드와 피코크 상품 가격을 동결한다.

가격 동결 대상은 노브랜드 1500여개, 피코크 700여개 모든 상품으로, 이마트 매장 및 SSG닷컴(쓱닷컴) 모두 적용된다.

이마트는 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PL 상품 수요가 커진 데 따라 필수 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젊은 고객들을 겨냥한 신상품 개발에 나서는 등 PL 강화에 나선다.

이마트에서는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브랜드와 피코크 점포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 제조사 상품 매출은 1.4% 증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미국 유통업체 크로거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엘버트스도 PL 상품을 늘리는 등 PL 경쟁력 강화는 최근 글로벌 유통업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동결 역시 글로벌 유통업계의 주된 동향 중 하나다. 일본 대형 유통업체 이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사 PL인 '탑밸류'(TOPVALU) 품목 3000개 가격을 동결했다.

영국 대형 유통업체인 세인즈버리는 8월부터 2000여개 상품의 가격 동결을 선언했고 프랑스의 유통업체 르클레르도 7월 생활품 120개 품목 가격을 한시적으로 동결했다.

이마트는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출생)를 겨냥해 노브랜드와 피코크 브랜드의 상품군도 강화할 계획이다.

PL 상품 가격 관리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가격 정책에는 일부 변화가 생긴다.

40대 필수상품군을 선정해 상품군별 대표 상품을 업계 최저가로 공급하던 정책은 중단하는 대신 10월부터는 시즌별 주요 상품 할인과 일주일 단위로 500대 상품의 가격을 관리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